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 민간위탁 전환 본격화

도, 센터·계도반 통합해 2027년부터 3년 위탁 추진
심의 과정서 ‘사무실 임차료 미반영’ 문제 제기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방식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센터를 운영하는 제주시도관광협회가 맡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무실 임차료가 사업비에 반영되지 않아 자체 운영 공간을 갖춘 기관이 아니면 이번 공모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제주자치도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 제주도청 본관 한라홀에서 제3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안전을 심의,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앞으로 제주도의회 동의와 수탁기관 공개모집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현재 이원화된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와 건전 관광 질서 계도반을 통합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민간에 위탁할 계획이다. 연간 사업비는 5억2300만원 규모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는 2024년 여름 이른바 비계 삼겹살, 해수욕

장 평상 요금 논란 등으로 제주 관광 이미지가 악화하자 그해 7월 만든 조직이다. 부정적인 여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민간위탁 대신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출범했으며 현재까지 도관광협회가 운영하고 있다. 계도반 또한 도관광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도는 관광불편신고센터와 계도반을 통합해 민원 접수·상담부터 현장 출동과 사후 중재까지 이어지는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두 조직을 함께 운영해 중복 예산을 줄이고 재정 효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는 사무실 임차료가 사업비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두고 특정 기관에 유리한 공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체 사무실을 확보하지 못한 법인이나 단체는 별도의 임차 비용을 부담해야 해 사실상 공모 참여가 힘들다는 것이다.

한 심의위원은 “관광협회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광협회를 미리 내정해 놓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자체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을 염두에 두고 임차료를 제외해 사업비를 편성했다”며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공개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보민기자 sobom@ihalla.com

제주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700만원 한도... 재활치료비도 최대 300만원 지급

제주시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청각장애인들의 청력 회복을 통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사업’을 연중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청각장애인이다. 선정 우선순위는 시설 입소 청각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 기준을 고려한 재가 청각장애인 순이다. 동일 순위일 때는 세대 내 장애인 수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

정한다. 지원 내용은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비 1인당 최대 700만원, 수술 후 2년간 재활·매핑(mapping) 치료비 1인당 최대 300만원이다. 매핑은 환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적은 소리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가청범위를 찾아낸 후 인공달팽이관 내 각 전극간의 균형을 잡아 주는 과정이다.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를 방문해 신분증과 수술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호자 또는 시설장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시, 어린이집 267곳 급식 위생·안전점검
27일부터 실시... 자연재난·위생사고 예방 차원

제주시는 오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지역내 어린이집 267개소를 대상으로 ‘여름철 급식 위생 및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감염병과 식중독 등 위생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된다.

이에 이들 어린이집은 자체점검표를 활용해 점검하고, 이 가운데 40개소에 대해서는 제주시가 직접 현장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사항은 ▷하절기 재난

대응 및 시설물 안전관리 ▷소방·전기·가스 안전설비 관리실태 ▷급식·위생 관련 청결 및 소독 상태 유지 여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개인위생관리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추가 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어린이집 4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 22건에 대해 행정지도했다. 백금탁기자

송악산 둘레길 탐방로 정비 완료... 24일 개방
서귀포시 “탐방객 안전 강화·쾌적한 탐방환경 조성”

서귀포시 최근 3년 축구장 90개 크기 조상땅 찾았다

2024-2026년 6월 기준 983필지·64만2783㎡ 규모

서귀포시가 올해 상반기를 포함해 최근 3년간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축구장 90개 규모의 토지를 찾아냈다.

20일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조상땅 찾기를 통해 확인된 제공면적은 64만2783㎡로 FIFA 권장

기준 축구장(7140㎡) 90개가량의 규모다. 이를 포함해 시는 이 기간에 조상땅 찾기 983필지(14.1%), 안심상속 4596필지(65.7%), 본인토지 확인 1412필지(20.2%) 등을 통해 총 6991필지·793만8162㎡(약 240만평)의 토지를 확인 제공했다.

안심상속은 사망자의 재산이나 채무를 원스톱으로 조회·신청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서귀포시는 연중 본인 또는 조상 명의의 토지를 무료로 찾아주는 토지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 345명에 대해 1387필지·148만6116㎡의 조회 결과를 신청인에게 제공했다. 유형

별로는 조상 땅 찾기 184필지·16만2592㎡, 안심상속 890필지·100만3457㎡, 본인 토지 확인 313필지·32만65㎡ 등으로 집계됐다.

이 서비스는 오래전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는 것은 물론 사망신고시 상속권자에게 사망자 토지 소유 현황을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개인이 법원에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본인 토지 확인 등에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백금탁기자

서귀포시는 탐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송악산 둘레길 노후 탐방로 정비공사’를 최근 완료하고, 공사기간 통제됐던 탐방로 일부 구간을 오는 24일부터 개방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비공사는 송악산 둘레길 내 노후화된 전망대 2개소와 탐방로 약 230m 구간의 노후 시설물을 전면 교체한 사업으로 탐방객의 안전 확보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

됐다. 공사기간에는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지난 5월 11일부터 일부 탐방로의 출입을 통제했다. 이에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해당 구간의 출입을 재개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탐방로와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선제적인 정비를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금탁기자



[실제시공이미지]



머무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공간,
당신의 이야기로 채우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시공!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A/S 보장

동서인테리어

건축 / 실내 토탈 인테리어 / 욕실 / 거실 / 상가 등
시공문의 064) 758-0015



일상이 새로워지는
오늘을 담은 가구

우수한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 A/S보장
신구간 맞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동서가구

싱크대 제작 / 불박이장 / 침대 / 소파 / 가구 일체
구입문의 064)758-0065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쉬운
높이조절

쉽게 높이조절되는 쿨고리 쿨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쿨고리 작업세트 구성



쿨고리 안파고정판 안파밴드 쿨고리 작업세트

쿨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054-652-3725
www.dainfine.com

다인산업(주)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